

# 인간 노조 vs 로봇 노조



김승호의  
시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현대차 노조가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방침에 반대하며 최근 내놓은 입장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측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의 부품 작업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CES에서 첫 선을 보인 아틀라스는 56개의 자유도(DoF)를 갖춰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 최대 50kg의 무게를 들어 2.3m의 높이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업계에선 아틀라스의 대당 가격을 약 13만~14만 달러로 추정한다. 우리돈 2억 원 정도면 1대를 살 수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연봉이 약 8만 달러이고 이를 2교대로 돌린다고 하면 아틀라스 1대로 2년이면 본전을 뽑는다.

게다가 아틀라스의 생산량이 연간 1만 대를 넘어서면 가격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나온다.

10만 달러인 아틀라스를 5년간 하루 24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운용비용은 3.4달러 정도로, 사람 인건비의 약 10% 수준이다. 사람이 2교대하는 대신 로봇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성비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선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로봇은 파업, 태업 등 쟁의도 없어 경영자 입장에서 금상첨화다.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은 자동화가 더욱 절실하다. 로봇은 인력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에 있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의 모습에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투영된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섬유 제조에 쓰이던 기계를 파괴했다.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 21세기 들어 인간과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의 줄다리기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로봇을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수단’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다. 한쪽에선 기술 전환을 위한 비용을 놓고 벌어진 최초의 사회적 저항으로 평가한다. 당시 사회에 노동시간 규제, 노사 합의 제도 같은 인간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시대에 맞는 옳은 질문을 던지면서다.

하지만 러다이트 운동을 흠평하는 쪽은 사람들이 기술을 거부하면서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화는 진행됐고 인간은 기계에 밀려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간이 만든 노조는 러다이트 운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전통화와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잃으면 문닫을 수 밖에 없다. 로봇과 제대로 싸워보기전에 사람이 먼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노조가 공존과 공생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하는 이유다.

좀더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인간 노조가 자칫 로봇들이 만든 ‘신금속노조’와 싸울 날도 머지 않은 듯 하다.

/bada@metroseoul.co.kr

## 오르는 증시, 마냥 웃지 못하는 한국거래소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불과 7개월여 만에 현실화됐다. 파죽지세로 상승한 코스피는 이제 5000이 ‘뉴노멀’이 됐고, 6000, 7000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시 랠리를 한국거래소의 성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들이 존재한다. 코스피 5000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자본시장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었다. 사실상 한국거래소는 흐름 위에 올라탄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취임 첫해인 2024년 말 코스피는 2399.49포인트로 마감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코스피는 하반기에만 14% 추락하며

주요국 중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미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55개사로, 총 상장사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코스닥 기업의 참여율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다사다난했다. 2025년 3월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전 종목의 주식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평가된다.

더불어 증시 상승세가 한국거래소의 위상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로 출

범한 넥스트레이드(NXT)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넥스트레이드는 등장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기록하며 한국거래소의 입지를 위협했다.

그래서일까. 정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12시간 거래’,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라는 빠듯한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분부는 “정 이사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과 노동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제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한국거래소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상승장의 과실을 누리기보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득에 무게를 뉘야 할 때다.

/godhe@

오늘의 운세 1월 30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마음이 흐려지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인. 48년생 앞면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해결. 60년생 서북 방향에서 귀인을 만남. 72년생 밀이 빠진 독에 물을 붓기인데 자식의 일이니. 84년생 고지가 다가오니 적극적으로 변화를.



소

37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를 생활화. 49년생 공과 사의 구별이 명확해야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다. 61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73년생 도로에서 다투다가 경찰서行이 되니. 85년생 지는 태양을 누가 막을 것인가.



호랑이

38년생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50년생 친구의 조언에 기분 나빠 할 것 없다. 62년생 평생토록 부를 누리려면 받는 만큼 겸손해야. 74년생 힘들어도 해오던 일은 미루지 마라. 86년생 초대받지 않으니 이로운 일은 없다.



토끼

39년생 과거를 동경하지 말 것. 51년생 삼재팔난이니 낯선 이성의 만남은 조심. 63년생 유학계획보다는 현재 장소에서 노력해보라. 75년생 장남이라면 가문의 체사를 챙겨서 이어가도록. 87년생 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부엌 재정비를.



용

40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52년생 학수고대하던 계약문서에 도장 찍는 날. 64년생 동업자가 양파라면 귀인. 76년생 친구와의 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도록. 88년생 지난 추억이 생각나지만 멀어찌하려고.



뱀

41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계기가 온다. 53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행운. 65년생 그저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77년생 성실한 행동이 미래의 시간에 큰 결실이 되어온다. 89년생 인내의 끝이 보이니 고생 끝.



말

42년생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감사. 54년생 파란색이 기분을 상쾌히 하니 마음도 상쾌. 6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78년생 오후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힘쓰라. 90년생 이적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재도전할 것.



양

43년생 부부간에 화합하면 뜻밖 바가 다 이룬다. 55년생 다투다가 경찰서 갈 일을 당한다. 67년생 여행을 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79년생 오늘은 운동보다는 집안 정리정돈을 해보라. 91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는 하루.



원숭이

44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니 자기 허물만 드러난다. 56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하루. 68년생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80년생 남의 눈에 눈물이 나면 내 눈에서는 더 큰 눈물바다를 이룬다. 92년생 돈 문제로 시비 붙지 않도록.



닭

45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데. 57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보라. 69년생 부동산계약이 뜻대로 진행되어 기쁨. 81년생 물이 흐르는 대로 진행되니 안정을 이룬다. 93년생 과거 헤어전 연인의 연락을 받고 마음만 살란.



개

46년생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58년생 험담하지 말고 본질을 찾아라. 70년생 능력이 부족하면 성실성이라도 갖춰라. 82년생 부모님 앞에서 돈 문제로 갑론을박이 무슨 행동인가. 94년생 부와 권력은 같은 빛깔일 수.



돼지

47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날. 59년생 주경야독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71년생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하던 주식을 못 끊는다. 83년생 도박성 투자는 금물이니 감언이설 주의. 95년생 능력도 없으면서 이직을 생각하다니 한심.



## 김상회의四季 스토킹의 위험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잠재적인 강력범죄의 씨앗으로 떠오른 것이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일생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이다. 과거의 스토킹은 전화를 계속하거나 집 앞에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토킹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 문자 메시지, SNS, DM,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취한다. 더 심해지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훔친다. 피해자는 24시간 감시당하고 누군가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직장 또는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위협은 보복 범죄다. 경찰에 연락해서 스토킹을 못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와 가족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다. 이별 살인 범죄가 종종 벌어지는 것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법적으로 스토킹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법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스토킹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강력범죄의 시발점이라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무너진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폭력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을 간절히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종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844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948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9 | 8 | 7 | 1 | 9 | 8 | 2 | 6 | 1 |
| 1 | 6 | 1 | 2 | 7 | 9 | 8 | 9 |   |
| 2 | 9 | 8 | 8 | 1 | 6 | 9 | 1 | 7 |
| 8 | 9 | 6 | 1 | 8 | 7 | 1 | 9 | 2 |
| 1 | 8 | 1 | 9 | 2 | 9 | 7 | 6 |   |
| 7 | 2 | 9 | 6 | 1 | 8 | 8 | 1 | 9 |
| 6 | 1 | 8 | 7 | 9 | 1 | 9 | 2 | 8 |
| 8 | 1 | 9 | 9 | 6 | 2 | 1 | 7 | 8 |
| 9 | 7 | 2 | 8 | 8 | 1 | 6 | 9 | 1 |

|   |   |   |   |   |   |   |   |   |
|---|---|---|---|---|---|---|---|---|
| 9 | 6 | 9 | 7 | 8 | 1 | 1 | 2 | 8 |
| 2 | 1 | 8 | 9 | 8 | 1 | 6 | 7 | 9 |
| 7 | 1 | 8 | 9 | 2 | 6 | 8 | 9 | 1 |
| 1 | 7 | 2 | 8 | 6 | 9 | 8 | 9 | 1 |
| 8 | 9 | 8 | 8 | 2 | 7 | 1 | 1 | 6 |
| 6 | 8 | 1 | 1 | 9 | 7 | 2 | 8 | 9 |
| 1 | 9 | 6 | 2 | 1 | 8 | 9 | 8 | 7 |
| 8 | 2 | 1 | 1 | 7 | 9 | 9 | 6 | 8 |
| 9 | 8 | 7 | 6 | 9 | 8 | 1 | 1 | 2 |